

# 최 근 발 생 하 는 화재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에 대한 小考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큰 재난을 부르기도 한다. 개개인의 의식 속에 담혀진 방화문을 열고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소방기본법을 준수한다면 화재의 양상이 변하고 대형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 1 머리말

불은 인류가 추위를 막고,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발전되었다. 특히 불은 옛 선인들에게는 각종 의례나 예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심과 경외감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었으며, 점차 사회문화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여 살면서 불은 인류에게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도 함께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재난은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인내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이러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처절한 몸부림 끝에 사고를 겪을 때마다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 왔다. 결국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법의 개정과 시설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발생결과를 놓고 몰두한 나머지 많은 원론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은 면속에서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문제로 제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씀니다.

## 2 본문

최근 일어나는 화재의 양상과 어려움은 많은 분들이 앞서 제기한 논문 속에서 도시화와 고층화로 인한 소방의 고도화로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첨단과학의 상징인 스프링클러나 규제라는 이름의 법제도 강화, 소방시설의 보강 등 불이 날 때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화재의 양상이 변하고 대형화된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부분들을 잊지 않는다면 화재는 결코 두려움이나 고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 안전의식과 설마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팽배된 의식 속에서 결국 따라오지 못하는 의식부분들을 소방시설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 가.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현황 비교

먼저 최근 10년간('95~'04)의 화재발생 사례를 볼 때 약 10% 범위 안에서 안정되게 증감을 반복하는 화재의 건수와 인명피해의 양상을 볼 수 있다(표 1, 2 참



조). 이는 곧 한계점이라고 표현하면 무리일지는 모르겠으나 화재를 감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들이 이제는 ‘소귀에 경읽기’로 자리잡아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는 대다수가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화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나는 것을 해석해야 한다. 화재사례가 사진전시회나 안전교육을 통해 제기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불들이 났으니 위험하다 따라서 조심해야한다는 60년대식 논리로 지금도 교육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표 1. '95~'04 화재발생 현황(건수)

구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축물	21,546	23,106	23,743	27,168	28,253	28,846	30,078	27,102	25,235	26,620
차량	4,485	5,431	5,606	5,377	5,487	5,871	5,973	5,794	6,049	6,012
선박	40	127	123	118	115	127	117	70	88	103
항공기		1		1	1		1			2
총계	26,071	28,665	29,472	32,664	33,856	34,844	36,169	32,966	31,372	32,737

■ 표 2. '95~'04 인명피해 현황(명)

구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사망	571	589	564	505	545	531	516	491	744	484
부상	1,648	1,634	1,631	1,779	1,825	1,853	1,860	1,744	2,089	1,820
총계	2,219	2,223	2,195	2,284	2,370	2,384	2,376	2,235	2,833	2,304

■ 사진 1. 미아리 여성성매매집결지 숙소



■ 사진 2. 미아리 여성성매매집결지 숙소 내부



1930~60년대 화재의 경향이 성냥, 양초, 기름, 아궁이 불에서 70년대 유류, 80년대 이르러 전기화재로 양상이 달라지고 변모한 것은 사실이다.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건축공학이나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방공학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이라는 특성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인은 달라지고 있다하더라도 타는 것(연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 과정이나 절차를 눈여겨 보더라도 이는 불변의 진리로 귀착되는 정리되지 않은 논리일 것이다.

그 예가 진압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과거 불을 두드려 끄는 멸화자에서 펌프방식의 완용펌프, 증기기관의 도입으로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의 힘을 빌기 시작하면서 점차 신속성과 기동성을 갖춘 마필차가 도입되고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본격적인 소방차 시대가 전개된다. 1872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방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개발되고 사용되면서 소방의 진압방식은 예방으로 전환되는 듯하였으나 자동식 소화설비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이 또한 변화에 혁신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

**(1) 미아리 여성성매매집결지 화재**

○ 일 시 : 2005. 3. 27. 12 : 36 ~ 12 : 56(20분간)

■ 사진 3. 예은 어린이집 화재



■ 사진 4. 익산시 주택화재



■ 사진 5. 강원 양양산불



- 장 소 : 성북구 하월곡1동 88-402 여성성매매집결지
- 대 상 : 화초정
- 원 인 : 3층 숙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 인명피해 : 사상 6명(사망 5, 부상 1)
- 재산피해 : 1,400만 원(부동산: 800만 원, 동산: 600만 원)
- 사용용도 : 1~2층 영업장, 3층 숙소, 4층 숙소(3실)

**(2) 예은어린이집 화재**

- 일 시 : 2004. 5. 2. 11:47 ~ 11:56(완진)
- 장 소 : 유곡동 95-6번지 / 예은어린이집
- 시설구조 : 원통형(직경 74cm, 높이 6m) 플라스틱 비상탈출구
- 원 인 : 어린이 불장난

공휴일 출입문이 잠겨 있어 어린이집 담을 넘어가 함께 놀던 같은 반 친구가 길에서 주운 일회용 라이트로 신문지에 불장난을 하다가 옮겨 붙어 발화됨.

- 인명피해 : 사망 1명 조00(남, 10세)
- 재산피해 : 부동산 180만 원(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된 비상탈출구 소실)

**(3) 익산시 주택화재**

- 일 시 : 2004. 10. 31. 00:42분경(초진-00:56, 완진-01:10)
- 장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538-23번지
- 대 상 : 주택 - 치장 벽돌조 스테브지붕 1동 2층 89.1㎡
- 개 요 : 화재당시 1층 세입자 부모는 외출 중이었고 어린이 3명(아들1, 딸 2)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으며, 이들 남매 중 2명[정00(남, 12), 정00(여, 7)]은 빠져 나왔으나 정00(여, 11)이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망하였고 대피한 남매 2명은 연기흡입과 화상 등 부상
- 인명피해 : 3명(사망1, 부상2)
- 재산피해 : 15,189천 원(부동산 13,436천 원, 동산 1,753천 원)

**(4) 강원 양양산불**

- 일 시 : 2005. 4. 4. 23:53분경
-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읍
- 대 상 : 산불화재
- 개 요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파일리 야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2개 읍면 21개 마을로 급속히 번졌음.

■ 사진 6. 강원 양양산불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조사중

**라. 2005년도부터 강화되는 주요내용**

결국 우리는 그동안 겪은 사고들을 시설강화로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의식에 의존하기에는 아직도 연습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설의 강화는 비용을 낳았고, 비용은 규제냐 아니냐 라는 비용을 낳았고, 비용은 규제가 아니냐라는 시비와 논란을 제공하였으며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1)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강화**

- 시 행 일 : 2005. 1. 1.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 적용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벌 칙 :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 시 행 일 : 2005. 1. 1.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 적용대상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모든 층
- 벌 칙 :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 시 행 일 : 2005. 1. 1.(1·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전체)
- 중 전 : 3일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자격부여
- 개 선 : 4일(1급 5일) 강습교육 수료자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4)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 도입**

- 시 행 일 : 2005. 5. 29. (안전교육 미 이수시 ⇒ 300만 원 이하 벌금)

■ 사진 7. 최근 서울지하철의 가연물 증가 모습 (플라스틱과 PVC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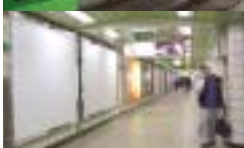
승강장 기둥의 회전광고판



전동차 진입로의 광고판



환승통로의 대형광고판



전동차내 비상마스크 보관함



**마. 화재사고를 돌아보며**

결국은 원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은 불을 내지 말아야하고 설사 불을 낸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소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겪으면서 화재시 가연물의 양이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크기가 예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특수장소든 차량이든 가연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곧 가연물의 타는 시간과 연기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직도 가연물의 양을 줄이기보다 소방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해 감소는 아직도 요원한 일일 것이다.



■ 사진 8. 프랑스 파리의 정비된 모습



■ 사진 9. 프랑스 파리의 계획된 모습



**둘째, 도시방재 불연화 사업 또는 연소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다다닥 붙은 건물은 아무리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1426년 2월 한성부 대화재로 서울시내 행랑 1백 6간과 중부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는 경험을 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1666년 9월 런던 시내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대화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물론 목조 건물이라는 특성이 있었지만 건물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소방지와 대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만들어야 하며,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내화성능의 벽과 바닥, 방화문 등을 이용한 방화구획 설정과 일정한 구간마다 띠를 형성하여 대규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도로, 하천, 철도, 공원 등을 두어 건축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고 저지할 수 있는 방재라인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역의 위험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준비된 도시, 계획된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많은 부분들이 바람직하게 검토되고 만들지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안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화된 도시와 지역을 만들면서 가령 출판·인쇄단지를 만들면 많은 잉크와 종이,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류와 전기, 그리고 화공약품 사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연물이라고 볼 때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또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사전 설계단계에서 도시계획에 이미 포함된다면 훨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지를 이루는 편리한 점과 좋은 점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은 도외시되고 뒷전으로 밀리므로 지역적인 재난의 위험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하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서울의 강북이 개발이라는 도마위에 올라섰다. 안전을 기본 토대로 하는 계획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안전은 생활과 연계되어야 한다.**

길거리에 덩그러니 서있는 지상식소화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작동여부를 의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소화전이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진다. 소화전에 물이 안온다는 것은 곧 수도물이 안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장 사망에서 전화가 빗발 칠테니 말이다. 따라서 건물 내에 설치된 자동화재 탐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시설들이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고장나면 생활 자체가 불편해 즉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언제든지 소방시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진 10.  
금지막힌 비상구 표시와 함께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경고표시  
(영국 런던)



**다섯째,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한다.**

언제까지 국가가 서비스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얼마 전 지방의 한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나간 적이 있었다. 건물관계자는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시공했고, 건축재료도 상당부분 직수입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안전에는 자신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잠깐 둘러본 건물의 곳곳에서는 이미 우리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이유로 구획된 문을 떼어버리고(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없었다고 함)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는 커튼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엘리베이터입구 제연실 출입방화문은 고임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대형유도등은 미관상의 이유로 소형으로 바뀌었고 통로를 구획하는 문들은 말발굽에 의해 통행에 아주 편리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방기본법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건물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따라서 얼마전까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귀찮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당연히 매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소방시설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골격이 필요하다. 그 내용 속에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의존하는 안전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3 맺음말**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꿈꾸며 국제도시로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발상은 생활공간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도시 등 사회전체가 안고 있는 예측불허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개개인의 의식 속에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말발굽은 달지 말아야 하며 아파트(내화구조)의 베란다를 임의로 개조하지 말아야 하고, 조심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집집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어야하고 대비하는 마음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디지털 방식의 이야기나 첨단 IT 분야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한 안전의 시작은 없다. 소방기본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눈을 크게 뜨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들에게 현실은 더욱더 과도한 규제로 다가올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법률은 규제를 통해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기 때문이다. (☺)